



즉시 배포용: 2018 년 11 월 2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린 카운티에서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를 개관한다고 발표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역사, 식음료 등을 홍보하는 지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 명예의 거리(Walk of Fame), 어린이 놀이터, 대화형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네덜란드 식민지 풍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의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풍의 유서 깊은 건물 외관을 갖춘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북쪽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주도 지역의 관문을 대표하며, 이 지역의 현지 관광산업, 풍부한 역사, 식음료 등을 홍보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뉴욕 경제 발전의 기둥입니다. 이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 명소를 홍보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풍부한 역사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를 홍보하여,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현지 경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이 제공하는 훌륭한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수용하고 지역 경제 및 뉴욕주 전체 경제를 강화하여, 방문객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관광산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올버니에서 남쪽으로 약 15 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이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21B 번 출구(콕사키 - 9W 번 도로(Coxsackie - Route 9W))와 21A 번 출구(버크셔 구간(Berkshire Section)/매스 파이크(Mass Pike) 방향)

사이의 스루웨이(Thruway) 87 번 주간 고속도로(I-87)에 있는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의 뉴 볼티모어 휴게소(New Baltimore Service Area)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현재 연간 400 만명이 뉴 볼티모어 휴게소(New Baltimore Service Area)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2 년에 처음 세워진 이후 교통량이 3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서 뉴 볼티모어 휴게소(New Baltimore Service Area) 출구 진입로를 타고 87 번 주간 고속도로(I-87)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스루웨이(Thruway)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기존의 뉴 볼티모어 휴게소(New Baltimore Service Area)에서 제공하는 주유소 및 편의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허드슨 리버 벨리의 역사 및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현지 명소를 중점적으로 선보입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 유서 깊은 사라토가 경마장(Saratoga Race Course), 레이크 조지(Lake George) 지역 등과 같은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는 주도 지역 및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재배된 지역 농산물을 선보이는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주도 지역의 유명한 자원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현지의 유명한 식음료를 선보이는 다각적인 시설입니다. 현지 관광지를 홍보하는 웰컴 센터(Welcome Center)를 뉴욕주 전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방문객의 현지 명소 체험과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사업 지원을 장려하면서, 현지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홍보합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도 지역 웰컴 센터 테이스트 뉴욕 마켓(Capital Region Welcome Center Taste NY Market)에서 뉴욕주의 수많은 농장과 식음료 생산업체들을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마켓은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신선한 점심 메뉴에서 독특한 선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특산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지역사회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성공을 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린 카운티 의회(Greene County Legislature)의 Kevin Lewi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카운티에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가 자리잡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훌륭한 식음료 제품과 공예품을 선보입니다. 따라서 현지 생산업체와 장인들에게 성공과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 볼티모어 타운의 Jeff Rus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볼티모어 타운은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를 선보이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주도 지역은 우리 주와 우리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한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가 들어서는 장소로 우리 지역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뉴욕주 전 지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웰컴 센터(Welcome Center) 11 곳 중 한 곳입니다.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는 웨스턴 뉴욕 웰컴 센터(Western New York Welcome Center) 및 모호크 밸리 웰컴 센터(Mohawk Valley Welcome Center) 외에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를 따라 혹은 주변에 건설된 세 번째 웰컴 센터(Welcome Center)가 됩니다. 기타 웰컴 센터(Welcome Center) 부지에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애디론덱스, 허드슨 밸리/캐츠킬스, 노스 컨트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 대한 지원금은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8 State Budge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1,000 평방피트 규모의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 외관은 이 지역의 유서 깊은 네덜란드 전통에 뿌리를 둔 건축 디자인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유산을 보여주는 지역별 특정 요소를 갖춘 유물 전시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는 지역의 명소와 관광지, 비디오 월(video wall), 뉴욕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 등을 선보이기 위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대화형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은 주도 지역에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재료로 만든 수프, 샐러드, 샌드위치, 디저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신선한 조식과 점심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포장 간식, 지역 특산물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 생산업체를 위해 상품을 홍보하고 뉴욕 주민 및 방문객들과 뉴욕주 식음료 제품을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메뉴와 상품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은 아침 7 시에서 오후 7 시까지 일주일 내내 열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 부지는 현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판장과 음악을 주제로 한 어린이 놀이터, 이 지역의 수많은 극장 및 공연 예술 센터들의 노드를 포함하는 야외 공원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축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표준 설계로 지어졌으며, 태양광 전지판, 전기차 고속 충전소, 빗물 관리 구조, 강화된 자연 채광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자재 등을 갖추었습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676억 달러를 지출한 2억 4,38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4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38,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업체입니다.

주도 지역은 2011년 이후 최대 15 퍼센트 증가한 약 1,900만 명의 방문객을 2017년에 맞이했습니다. 이 지역의 방문객 지출 액수는 2017년에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22 퍼센트 증가한 액수입니다. 관광산업으로 일자리 51,775개를 지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